



진실을 밝히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로 계승하는 기념사업
남미의 진상규명과 기념공간

문중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8만여 명의 희생자가 생겼던 아르헨티나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5월 광장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다. 광장에 하얀 페인트로 새겨진 쓰러져 누운 사람의 형상(왼쪽)과 '5월광장의 어머니회'의 상징인 두건 마크(위)가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세상은 동글다고 했던가? 한국에서 18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정반대의 나라 남미. 사는 곳은 정반대이지만 이 나라들도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압제에 신음했던 공통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는 나라들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은 더욱더 치밀하게 은폐를 자행하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주체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감춰진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지 감춰진 사실을 밝히는 효과에 머물지 않고 잘못된 질서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내고,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순탄하게만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깊은 뿌리를 과시하는 군부나 권위주의 잔존세력의 방해로 인해 몇 차례나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필자는 이러한 공통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재정권의 만행

아르헨티나는 1930년 이래 무려 6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집권한 군부의 인권 탄압은 극에 달했다. 76년 3월 24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비델라, 비올라, 갈티에리, 비노네 등이 차례로 통치하며 전 근대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중 군부의 인권탄압으로 3만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추악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과 정반대의 대륙 남아메리카

당시 군부는 좌경 소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나라 곳곳에 수백 개의 비밀 구치소를 두고 일단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 구금했다.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한 노조 지도자들, 학생회 간부, 독재에 협조하지 않는 신문기자들, 진보성향의 학자들, 빈민가에서 선교 활동을 한 목사와 신부 등 모든 사람들이 일제 검거에 걸려들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 과정에서 동료와 친구들이 연행됐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살해돼 암매장되고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다.

브라질은 1922년부터 1961년 사이 열 네 차례의 쿠데타를 경험했다. 결국 1964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는 카스텔루 브랑쿠, 코스타 이실바, 메디씨, 가이젤, 피게레이두로 이어지는 다섯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1985년까지 장장 21년 동안의 군부통치가 자행된다. 이 시기 동안 군부정권은 사망과 실종 250여 명, 부상과 구금 6만

여 명이라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

멕시코는 남미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9년 이래 제도혁명당(PRI)이 70년 이상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권위주의적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1968년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이른바 ‘틀라켈콜코 광장의 학살’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68년 제19회 올림픽 대회를 앞둔 멕시코는 7월부터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큰 혼란을 겪었다. 고교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에 경찰이 개입, 고교 건물을 강점한 데서 발단이 된 시위는 국립 멕시코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제도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올림픽을 위해 특수훈련을 받은 군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 결과 학생시위는 교수까지 참가, 더욱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반정부적으로 바뀌어 올림픽을 한 달 앞둔 9월에는 ‘올림픽 비협력’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유혈시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올림픽 대회를 10여 일 남겨둔 10월 2일, 학생들은 이날도 멕시코시티 북쪽 틀라켈콜코 광장에 집결, 주위 시설들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올림픽 대회 무산을 염려한 정부는 이날 밤 군 병력으로 이 지역을 이중 포위하고 무장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 시위대를 무차별 학살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40여 명, 부상자는 2백여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사망자만도 1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남미의 민주화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당연히 진실규명을 위한 민중들의 끊임없는 몸

부림을 들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 한 문민정부가 수시로 자행되는 군부잔재들의 쿠데타 시도로 인하여 과거의 만행을 덮어버리고 갈 수 밖에 없는 타협의 행보를 취하게 된다. 한편 브라질은 군부의 집권기간인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어려운 진실 규명 작업을 벌여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진행된 남미국가들의 진실규명 운동은 이후 미완성의 민주화를 완성형으로 맞추어가는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83년부터 84년에 '실종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브라질은 1979년부터 84년에 가톨릭교회의 '상파울로 주교단', 멕시코는 90년대 초반 12명의 저명한 지식인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규명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정치적 살인의 규모만 아르헨티나 3만여 명, 브라질 250여 명, 멕시코 1,000여 명이라는 진실을 밝혀 그 당시 군부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음을 만천하에 증명하였다.

군부나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검조차 찾지 못 하게 하는 철저한 은폐를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게 위한 노력들은 매우 힘든 싸움이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늑카마스(이제는 그만)'이라는 진실 보고서다.

물론 이 보고서에는 가해자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빠진 채 피해의 상황만이 기록되어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규명 작업은 군부나 권위주의 정권의 만행을 만천하에 날날이 밝히는 불꽃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진실 보고서가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난 2003년에 새롭게 집권한 카르츠네르 대통령에 의해 그동안 멈췄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브라질

과 멕시코 또한 그 진실보고서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 새로운 역사적 작업이 재시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

1976년부터 82년까지의 희생자는 어림잡아 사망 3만 명, 행방불명 4만 5천 명으로 총 8만여 명의 희생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대통령궁과 정부종합청사가 붙어있고 5월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해 기념탑을 세운 5월광장에서 끝없는 시위를 시작한다.

광장 중앙 독립선언기념탑 둘레에는 하얀 페인트로

1968년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멕시코 '틀라칼코코 광장의 학살'을 증언하는 추모탑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완전히 처벌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5월광장의 어머니회'의 회원들. 이들은 전부 70세에서 88세의 고령이다.

원이 그려져 있다. 또 쓰러져 누운 사람의 형상과 '5월 광장의 어머니회' 상징인 두건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추악한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5월광장의 어머니회' 회원들은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어김없이 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인다.

1976년 3월 24일 비텔라 육군 총사령관 등 군사평의회 멤버들이 일으킨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유 없이 사라져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들딸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이곳 광장에서 실종된 아들딸들을 찾아낼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77년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5월광장의 어머니회'를 결성,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5월광장의 어머니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수난의 역사다. 어머니들은 초기에는 실종된 아들딸들을 찾기 위해 내무부, 경찰, 종교단체, 정당 등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들의 호소는 묵살 당했다. 이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초기에는 60~70명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200여 명으로 숫자가 불어났다.

'5월광장의 어머니회' 사무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회 의사당 앞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5월 광장의 어머니회'는 전국에 15개의 지부와 2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약450여 명의 변호사, 기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조단을 갖고 있다. 이 협조자들은 현재에도 학살 관련자를 길에서 만나면 어머니회로 연락하여 그들을 응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회의 회원들은 전부 70세에서 88세의 고령이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6개 나라에 연대기구가 만들어져있다.

어머니회는 사무실 1층을 카페로 운영하며 각종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비치하여 열람 및 판매하고 있고, 카페의 뒤편 건물에는 대학을 만들어 죽어간 이들의 정신을 후대에게 계승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5월광장 어머니회의 에베데 보나피니 회장은 “희생자들의 죽음의 진실이 철저하게 밝혀지고, 책임자들의 완전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보상이나 기념사업에 대한 제안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기념사업의 방향 제시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정치적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흡사한 면이 너무 많다. 잔혹한 군사독재의 탄압이 그렇고 여전히 그 잔존세력의 힘이 위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의문사진상규명을 비롯한 과거사청산작업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과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남미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하고, 진실



'5월광장의 어머니회'는 사무실 1층을 카페로 운영하며 각종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비치하여 열람 및 판매하고(위) 뒤편 건물에는 대학을 만들어 죽어간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아래)

을 밝힌 과거는 꼭 미래를 향해 펼쳐져야한다는 교훈이 지금 시기 우리의 기념사업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5·18 광주 기념사업을 위한 세계민주성지를가다』(1993년, 전남일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계획 부록-남미3개국탐방보고서』(2001년,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